

KT클라우드, 전국에 AI 데이터센터… 2031년 1GW 공급

여의도, 금융권 초저지연 서비스
지역별로 고객 맞춤형 AIDC 구축
AI·로봇으로 데이터센터 자동화

KT클라우드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중장기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에서는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비수도권에서는 고객을 먼저 유치한 뒤 단계적으로 증설하는게 핵심이다. 이를 바탕으로 2031년까지 1GW 이상의 자율 운영형 AIDC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KT클라우드 15일 열린 'KT 클라우드 서밋 2026'에서 이같은 내용의 AI 데이터센터(AIDC) 공급 계획을 밝혔다. 핵심은 지역별 수요와 입지에 따라 분산 공급하는 것이다. 전국 12개 데이터센터와 1200여 고객을 통해 파악한 수요를 공급 계획에 반영한다. 수도권에서는 용지 선정이 제한적인 만큼 전력과 인프라를 갖춘 부지를 먼저 확보한다. 이밖의 지역에서는 실제 고객을 먼저 유치하는 실수요 기반을 원칙으로, 향후 수백 메가와트(MW) 규모로 점차 확대하는 방식이다.



KT클라우드 김봉균 대표가 'kt 클라우드 서밋 2026'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KT클라우드

◆금융은 여의도·빅테크는 부천…지역별 AIDC 전략 발표

이날 행사에서 최옥진 KT클라우드 D C본부장은 지역·규모에 따른 고객 맞춤형 공급을 KT클라우드의 경쟁력으로 꼽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여의도에서 발생하는 금융권 수요는 KT 통신 시설을 거점삼아 영등포 일대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초저지연 서비스로 대응한다. 목동은 기존 목동 1·2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기업간거래(B2B) 서비스 거점으로 육성한다.

부천 등 경기 서부에서는 국내외 빅테크 수요에 대응한다. 안산·용인에서는 고밀도 그래픽처리장치(GPU) 수용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한다. 비수도권에서는 해외 AI 추론 수요를 국내에 유치한다. 부산을 중심으로 KT해저케이블과 연결되는 네트워크 이점을 활용한다.

공급은 2031년까지 20여개 부지로 점진

적으로 확대한다. 내년 부천을 시작으로 이듬해 대구·군산·용인을 거쳐 안산을 잇는 중장기 계획이다. 우선 과제는 비수도권에 입주 고객을 확보해 40메가와트(MW) 규모의 AIDC를 공급하는 것이다.

여기에 KT의 네트워크 역량도 더해진다. 각 지역에 흩어진 AIDC를 초저지연 백본망으로 하나의 인프라처럼 연결할 계획이다. 또한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자산과 통신 국사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다.

◆AI·로봇으로 데이터센터 운영 자동화
운영 방식은 AI와 로봇을 활용한 '자율 운영형'을 선택했다. AI로 설비의 이상 징후와 고장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을 관리한다. 현장에서는 피지컬 AI와 로봇을 적용해 설비 점검을 자동화한다.

또한 운영 현장에서 로봇 실증을 확대한다. 지난해 자율이동로봇(AMR)을 도입해 설비 상태를 감지하고 로봇 관제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했다. 올해는 보스턴다이나믹스 사족보행 로봇 '스팟'을 활용해 장애물이 있는 데이터 환경에서도 이동이 가능한지 검증한다. AI 에이전트

가 장애 사례를 조합해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고, 디지털 트윈 기술로 전력과 냉방 환경을 재현하는 운영자 훈련도 진행한다.

고밀도 AI 서버를 수용하기 위한 인프라 기술도 확보한다. KT클라우드 15일 행사에서 발생하는 열을 직접 식히는 D2C 냉각 기술을 설계 단계부터 검증하고 있다. 자체 장비를 활용해 140킬로와트(kW)급 고밀도 AI 서버와 유사한 전력·열 부하 환경을 구현하며 냉각 기술의 적용 가능성도 확인했다.

김봉균 KT클라우드 대표는 "이번 행사는 고객이 자사에 맞는 AX 실행 방안을 찾고 비즈니스 성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기술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라며 "축적된 클라우드·AIDC 기술과 운영 경험에 KT 그룹의 AX 핵심 인프라, 파트너사의 전문 기술을 결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의 전략 수립부터 인프라 구축과 운영, 고도화까지 함께하며 AX가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S "AI는 인간의 도구"… 자율행동 제한

오늘 AI

'휴머니스트 AI 행동강령' 공개
AI업계 '속도조절론'과 맞물려

글로벌 인공지능(AI) 업계에서 '속도조절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인간의 통제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체 AI 모델 행동강령을 공개했다. AI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거나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개발 단계부터 행동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1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MS의 AI 조직인 마이크로소프트 AI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자체 개발 AI 모델에 적용할 '휴머니스트 AI 행동강령' 초안을 공개했다.

강령을 관통하는 원칙은 '인간이 AI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MS는 인간이 AI에 대해 실질적인 통제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표를 바탕으로 향후 자체 AI 모델의 훈련과 기술적 통제, 운영·모니터링 체계 등에 이번 강령을 활용할 방침이다.

MS는 AI가 인간의 지시에 따라 승인



무스타파 솔레이만 마이크로소프트(MS) AI 최고경영자(CEO). /AP·뉴시스

된 범위 안에서 작동하도록 했다. AI가 독립적인 목표를 설정하거나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 행동하는 것도 제한한다.

인간이 AI의 행동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에도 선을 그었다. AI가 자신의 추론 과정이나 코드를 조작·은폐하거나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다른 AI와 소통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AI를 인간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도 경계했다. AI가 의식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인간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 존재로 설계해서는 안 된다

는 원칙이다.

특히 MS는 AI의 법인격이나 권리 부여에도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AI를 인간을 대신하는 독립적인 주체가 아니라 인간의 판단과 자율성을 돕는 도구로 규정할 것이다.

이번 강령은 향후 MS 자체 AI 모델의 개발과 운영을 규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MS는 법률과 윤리, 언어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했으며 외부 의견 수렴을 거쳐 강령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MS의 강령 공개는 글로벌 AI 업계에서 최첨단 모델의 개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시점에 나왔다. 이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최고경영자(CEO)는 최첨단 AI의 발전 속도를 늦추고 안전장치가 기술 발전을 따라잡을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도 안전성을 위해 AI 개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최휘영 장관, 도쿄게임쇼서 K-게임 점검

(문화체육관광부)

오는 20일 현장 목소리 청취

지난해 국회 일정으로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 현장을 찾지 못했던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이 오는 20일 일본 '도쿄게임쇼(TGS) 2026'를 방문한다.

넥슨게임즈·넷마블·엔씨소프트·스마일게이트·NHN·소프트업 등 국내 주요 게임사가 일본과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신작을 대거 선보이는 만큼 게임산업 주무부처 수장이 직접 K게임의 해외 진출 현장을 살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최 장관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아 게임' 관련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며, 방일 기간인 오는 20일 지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리는 TGS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최 장관은 국내 게임사들의 주요 부스



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최 장관의 게임산업 현장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 장관은 지난해 11월 '대한민국 게임대상'과 '지스타 2025' 참석이 예정됐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과 겹치면서 현장을 찾지 못했다.

당시 게임업계에서는 게임산업 주무부처 수장이 한 해를 대표하는 게임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번 TGS 방문은 최 장관이 국내 게임사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해외 게임쇼 현장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최빛나 기자

카카오톡, 북미 한인 위한 '지역소식' 신설

한인 생활정보 한데 모아

카카오가 북미 지역 카카오톡에 한인 업소와 재외공관, 오픈채팅 등의 생활정보를 한데 모은 '지역소식' 탭을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지역소식은 북미 지역 한인 업소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널과 외교부 재외공관 소식, 현지 이용자가 참여하는 오픈채팅방 등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인 생활정보 서비스다. 북미 지역 카카오톡 이용자는 별도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 세 번째 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지역별 한인 업소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상품과 행사, 할인 등 프로모션 정보를 확인하고 채널에 따라 특 메시지로 문의할 수 있다. 현지 사업자는 카카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왼쪽)와 조현 외교부장관이 지난 14일 정부청사별관에서 북미 지역 해외 안전·영사 행정 및 기타 공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약정을 체결했다. /카카오

오톡 채널 메시지와 채널 소식 기능을 활용해 가게 정보와 프로모션을 알릴 수 있다. 추천 채널로 선정되면 지역소식 메인 영역에도 노출된다.

/최빛나 기자

LGU+, 초소형 IPTV 셋톱박스 글로벌 첫선

'IBC 2026' 참가해 신제품 공개

LG유플러스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R AI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미디어·방송 기술 전시회 'IBC 2026'에 참가해 홈 미디어 신제품을 선보였다고 15일 밝혔다. 신제품 출시 전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현지시간) 열린 IBC는 전세계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 콘텐츠 기업, 장비 제조사 등이 참가해 최신 기술과 산업 동향을 공유하는 행

사다. 올해는 인공지능(AI),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클라우드, 커넥티드 홈 등 차세대 미디어 기술과 서비스를 주요 주제로 다뤘다.

이번 행사에서 LG유플러스는 초소형 IPTV 셋톱박스와 이동형 모니터, 카메라 인식 기반 골프 퍼팅 시뮬레이터를 선보였다. 특히 전시장에 전시된 IPTV 셋톱박스 가운데 가장 작은 크기의 제품으로, 소형화된 디자인과 높은 완성도로 관람객들의 관심을 받았다. 관람객들이 애폴로, 가온그룹, 마르시스 부스에서 이를 직접 체

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동형 모니터는 실내외 다양한 공간에서 미디어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활용성을 강조해 해외 통신사업자 및 파트너사들의 관심을 끌었다. 카메라 기반 골프 퍼팅 시뮬레이터는 현장 체험형 전시로 운영됐다. 방문객들은 직접 퍼팅 게임에 참여하며 제품을 체험했으며, 행사 기간 동안 높은 관심을 받았다.

행사 기간 동안 LG유플러스는 유럽·아시아·중남미 지역의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 장비 제조사 등을 대상으로 사업 미팅을 진행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을 모색했다.

/조민선 기자